

“지금 당장, 연금약자의 눈으로 연금개혁을”

새미래, '미래세대 위한 국민연금 개혁' 공약 발표 국민연금 보험료율 10년동안 15%까지 인상 등 골자 연금 사각지대 해소·출산크레딧 개선 등도 내놓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기 새미래 새미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10년동안 15%까지 인상 및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8세로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새미래 선대위 상임고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약 발표에 앞서 “선진 복지국가들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에 비해,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강도는 더 강해져야 하고, 그만큼 고통과 실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미래세대와

연금약자의 눈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청년과 미래세대가 과도한 노년 부양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30%대의 높은 보험료율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5년 주기의 연금 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충료를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일회성 개혁이 아니라 연속 개혁이 필요하다. 보험료율 뿐 아니라 의무납부 연령이나 지급개시 연령 또한 기대여명이 길어지는 것에 맞춰 지속적인 상황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



이낙연 새미래 선대위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1세 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새미래의 안으로 개혁할 경우 기금소진 예상연도는 2091년으로 늘어나 재정안정성이 강화된다”며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점차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국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미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출산크레딧 개선 등도 내놓았다.

이 상임고문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새미래는 자영업자와 납부예외자에게 연금보험

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 개선 방안과 관련 “첫째 자녀 출산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는 것에 더해 국민연금 ‘양육크레딧’을 보편 ‘부모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연금의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이상부터는 18개월씩을 추가로 인정하며, 50개월을 한도로 정해놓고 있다”며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었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한 ‘출산크레딧 12개월’에 ‘양육크레딧 36개월’을 확대한 부모연금을 도입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공백 4년을 메꿔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낙연 상임고문은 사각지대 해소와 군 복무자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 현행 6개월을 1년으로, ‘실업 크레딧’ 현행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을 최대 24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별취재반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주 비전 5대 공약 발표



재선에 도전하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은 13일 전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주비전 : 역사이딩 전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검찰특재 조기 종식과 연합정치를 통한 정권교체와 함께 이번에 발표하는 전주비전 5대 공약을 실현해 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웃음꽃 활짝 피는 전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전주비전 : 역사이딩 전주’를 주제로 먼저 전주 연구 시민 프론티어단을 창단해 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 총선 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맞춰 농협중앙회 유치를 위한 범도민 구축 △전주경륜장 부지에 청년 혁신 파크 조성: 전주를 ‘청년예술 수도’로 △서부권 교통체증 및 삼천동 주차지옥 해결 등도 발표했다. /특별취재반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18일까지 선거구 선택을”

전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지난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10개 선거구 중 구역 및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선거구는 총 8곳이며, 이 중 전주병, 군산·김제·부안갑(전군산), 익산갑, 익산을, 완주·진안·무주(전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총 5개 선거구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선거구에 편입된 전주병, 군산, 익산갑·을,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자는 현재 선거구나 일부지역이 편입된 선거구 중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18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를 포함해 선거구역이 변경된 전주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

선택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

보자가 선택신고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타지역을 반환한다.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에 있게 된 경우 18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8일부터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신청할 수 있고,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등록번호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된 때에는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 전에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전송 횟수는 전체 전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된다.

또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특별취재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尹정권 무책임 심판하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전주 찾아 지지층 확장 나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주를 찾아 지지층 확장에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방탄 연대’라는 격한 표현까지 쓰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13일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전주시민들을 만나 조국혁신당을 홍보했다.

그는 “우리 당은 창당 10일이 됐다”

면서 “신생정당이지만 많은 당원들과 국민의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첫째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 무책임함을 심판하려고 한다”며 “범민주진보연대는 언제든지 항상 협력하고 연대해서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

한 비난도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대표인데 김건희 여사와 검사 시절 수백건의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냐”면서 “그정도로 긴밀한 관계인데 국민의 힘이 김 여사 방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김건희 방탄 연대, 김건희 호위 연대, 다른 말로 하자면 ‘중전마마 방탄연대’라며 “중전마마에 대한 수사부터 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의를 한 뒤 월가월부를 해달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뉴스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특위 울산·포항 등 선진지 견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12~13일 울산과 포항의 이차전지 연구센터 및 기업 방문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다.

첫날인 12일에는 울산테크노파크 이차전지종합기술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이차전지 R&D 및 기업지원 인프라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이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 원천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연구 장비·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13일에는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1·2·3캠퍼스에 클로즈드 투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에코프로를 방문해 선진 기업 현황을 답사했다.

김동구 위원장(군산 2)은 “타지역이 이차전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역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차전지 기업의 선진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경북 포항은 작년 7월 20일 전북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분야 특화단지 지정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